



SGS400 세상을 변화시킬 400명의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뉴스레터

SYU Social Service Organization

제32호 / 발행일: 2011년 12월 16일

발행인: 김기곤 / 편집인: 김원곤

발행처: 사회봉사단

<http://www.syu.ac.kr>

<사회봉사 교과목 기말평가회>

지난 12월 1일(목)에 사회봉사 교과목 기말평가회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말평가회는 한 학기 동안 봉사해 온 학생들을 위해 사회봉사 보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김원곤 교수(사회봉사단 부단장)의 격려사 그리고 봉사왕 시상 및 수상자 소감과 사회봉사 경험담 발표로 이루어 졌다. 김원곤 교수(사회봉사단 부단장)는 격려사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으리라 기대한다."며 학우들에게 한 학기 동안 수고했음을 칭찬했다. 봉사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주희(간호학과 4) 학우는 "나를 낮추어 주는 것, 어쩌면 내가 가진 것 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봉사다."면서 "봉사를 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내가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정유정(경영학과 3) 학우는 "캄보디아에서의 봉사를 통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에 사회봉사 경험담 발표에서는 박준(생명과학과 2) 학우가 "사회봉사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의 생각만이 옳지 않음을 느끼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기말평가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학우들은 12월 2일(금) 제2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차 기말평가회에 참석했다. 개인을 중시하여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한 우리대학 학우들의 기특한 마음 덕분에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학기 동안 봉사를 위해 노력한 학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봉사를 통해 겪은 특별한 경험들이 2011년을 값지게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봉사왕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우들의 모습



학우들이 기말평가회에 참석하여 한 학기 봉사를 마무리하고 있다